현대불교

제 795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2010년 8월 4일 수요일 (음력 6월 24일 · 불기 2554년 · 주간)

한국 간화선 해외 학자들과 조우

東大 불교학술원 12~13일 '간화선, 세계를 비추다' 국제 학술대회

동 · 서양의 간화선 학자들이 참여해 동아시아 간화선을 비교 · 조망하는 자리가 열린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로버트 버스웰)은 8월 12~13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한국의 간화선을 대표하는 선사들과 외국의 간화선 연구자들이 모인 가운데 '간화선, 세계를 비추다(Ganhwa Seon, Illuminating the World)'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국 선사들의 법문을 듣고 한국의 시대별 간화선 수행자에 대해 연구, 간화선을 체계화 · 국제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첫날인 8월 12일에는 혜국 스님(前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대표)이 '간화선의 유래와 수행방법'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는다. 이어 △로버트 샤프(UC버클리대 교수)의 '선 공안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의 '간화선의 로드맵' △나타샤 헬러(UCLA교수)의 '거울을 닦는 도구' △종호 스님(동국대 교수)의 '화두의 내재적 구조 일고(一考)' △혜민 스님(美 햄프셔대 교수)의 '돈오의 점진적 체험' △이덕진(창원전문대 교수)의 '간화선의 한국적 이해' △김방룡 교수(충남대)의 '한국 근현대 간화선사들의 보조선(普照禪)에 대한 인식' △제임스 룹슨(하버드대 교수의 '선의 재고(再考)를 통한 재탄생'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둘째 날인 13일에는 수불 스님(안국선원 선원장)이 '간화선 수행의 대중화'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는다. 이어서 △혜원 스님의 '선종에서의 수선(修禪)의 전개와 간화선' △할버 아이프링(노르웨이 오슬로대학 교수)의 '명상의 목적과 마음의 태도' △윌리엄 바디포드(UCLA교수)의 '간화선과 중세 일본의 자세검점(子細檢點)수행' △코지마 타이잔(일본 임제종 스님)의 '일본 선계의 현황과 전망' △월암 스님(한산사 용성선원장)의 '한국불교 전통 선원의 현황과 수행' △즈루(포마나대학 교수)의 '누가 염불을 하는가' △로버트 지멜로(네덜란드 노트르담대 교수)의 '간화선과 중세후기 유럽기독교의 친(親)신비주의'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한편 주제발표가 끝난 뒤에는 국내 선사들의 회향법문이 진행된다. 12일에는 고우 스님(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이 '참선 수행의 목적'을 주제로, 13일에는 진제 스님(동화사 조실)이 '향상(向上)의 정맥(正脈)'을 주제로 한 법문을 동시통역으로 진행한다.

관련기사 7면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한국사찰음식연구회 연찬회 이후 진행된 사찰음식 시식회에서 고문 선재 스님(선재사찰음식연구원장, 첫 번째)과 회장 적문 스님(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장, 두 번째)이 각 음식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사찰음식 체계 잡아 세계에 알릴 터

한국사찰음식연구회 사찰음식시연회등 활동 본격화

사찰음식 저변확대에 공헌해 온 한국사찰음식문화보존회가 '한국사찰음식연구회'로 명칭을 바꾸고 사찰음식 정체성 회복과 세계화에 나선다.

한국사찰음식문화연구회(회장 적문)가 7월 26일 이천 감은사(주지 우관)에서 연찬회를 열고 명칭 변경 배경 및 향후 사업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연찬회에는 회장 적문 스님, 고문 선재 스님, 총무 대안 스님, 서기 우관 스님 등 집행부와 정관 스님 등 회원 스님 9명이 참석해 사찰음식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말했다.

적문 스님은 "개별 활동을 넘어 사찰음식의 체계적인 전승 등에 대한 고민이 이번 명칭을 변경케 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라고 소개했다.

대안 스님은 "조계종 문화부에서 추진 중인 사찰음식 관련 교재 편찬과 9월 19~20일 예정인 뉴욕 사찰음식의날 행사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향후 연구회를 통해 사찰음식계의 대외적인 활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연구회 스님들은 뉴욕 한국사찰음식의날을 앞두고 사찰음식의 세계화에 이바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연구회는 연찬회 후 '한국사찰음식문화연구회' 현판식과 사찰음식 시식회도 개최했다. (031)682-3169 노덕현 기자

조계종 해외유학승에 장학금

장학위원회 출범… 불교학 · 응용불교 · 불교문화 분야

공직자에 의한 종교편향과 체세포 복제 등 생명윤리 문제, 최근 불교단체의 목소리가 커지는 조계종단 인적쇄신 등 불교계에 크고 작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해법은 하나, 인재불사였다.

그동안 말로만 강조돼 온 조계종의 인재불사가 승가교육진흥위원회 산하 장학위원회 출범과 함께 맞춤형 인재불사, 능동적인 장학지원을 키워드로 새 전기를 맞게 됐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은 7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장학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장학위원은 위원장 보광 스님(동국대 교수)을 비롯해 정우 스님(통도사 주지), 지현 스님(청량사 주지), 수불 스님(안국선원 선원장), 각묵 스님(실상사 화엄학림 강사), 토진 스님(조계사 주지), 법진 스님(해인사 승가대학장), 대각 스님(적조사 주지), 정덕 스님(중앙승가대 외래교수), 법인 스님(교육원 교육부장), 계호 스님(진관사 주지) 등 11명으로 임기는 2년이다.

자승 스님은 "각자의 인연 따라 개별적으로 전달받던 장학금을 종단이 나서 장기적 · 체계적으로 보다 많은 학인스님들에게 지원해주자는 뜻에서 장학사업을 확대했다. 불교의 미래를 키울 인재를 눈 밝게 선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학위원회는 6월 종무회의에서 제정된 '장학금지급및관리에관한 령'에 근거해 활동을 펼치게 된다.

제정된 '장학금지급및관리에관한 령'에 따르면 조계종 재적 비구 · 비구니 중 국내 · 외 대학원에서 수학하는 스님은 과정 수료시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급 받는다.

해외 유학승 중 일본 소재 대학은 연 1200만원, 중국 지역은 1000만원, 인도 · 동남아 지역은 800만원, 미국 · 유럽 지역은 30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종립대학에서 수학중인 스님 중 석사과정은 연 450만원, 박사과정은 연 500만원을 받고, 일반대학 석사과정은 450만원씩 연 900만원, 박사과정은 1000만원을 지급받는다.

또 내년 6월 중 설립될 (가칭)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하는 스님들에게도 매월 일정액의 연구비가 지원되고, 교육교역자 스님들에도 프로젝트 수행비 명목으로 일정액이 지원될 예정이다.

장학위원회는 1차적으로 해외유학승 선발에 집중한다. 교육원 통계에 따르면, 조계종 재적 승려 중 해외 대학 석 · 박사 과정에서 유학 중인 스님은 600여 명이다.

장학위원회 스님들은 7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차 장학위원회를 열고 2010년 장학승 선발 분야 등을 확정했다.

교육원이 27일 발표한 '2010년 장학승 선발 공고'에 따르면 장학승 선발은 △계율 · 불전언어 · 선불교 등 불교학 △윤리학, 법학, 비교종교학, 교육학, 불교호스피스 등 응용불교학 △불교문화재 등 불교문화의 3개 분야로 나뉘어 선발된다.

장학승 선발은 8월 9일~9월 10일까지 접수기간을 거쳐 9월 장학위원회에서 심사 후 10월 중 10명 안팎 규모로 선발이 확정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2면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수경 스님 복귀"

화계사 신도 한 목소리

수경 스님이 주지로 있던 서울 화계사 신도들이 스님의 복귀를 호소하는 서명을 조계종 총무원에 전달했다.

화계사신도들은 7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조계종 총무원 사서실에 2600명 신도 명의의 서명지를 접수시켰다.

화계사 차호법행 신도회장은 "수경 스님이 큰 뜻을 세우고 떠나셨지만 화계사 대중은 스님이 화계사에 더 머물러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발적으로 서명했다. 우리의 뜻을 수경 스님에게 전달할 길이 없어 총무원에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화계사 신도들은 수경 스님이 6월 14일 주지직 등을 전격 사임하자 홈페이지에 수경 스님의 복귀를 촉구하는 성명과 함께 매일 사시예불 후 수경 스님을 위한 기도회를 열고 있다. 조동섭 기자

▶9 현장-4대강 대학생 답사단 ▶14 선지식-대선 스님 ▶18~19 책세상-여름에 읽을 불서 22선